



소개

조향사 니콜라 본빌의 손길에서 탄생한 메종의 새로운 시그니처 향

예거 르쿨트르가 선보이는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의 새로운 챕터

주요 정보:

니콜라 본빌의 Made of Makers™ 협업 프로젝트 확장: 예거 르쿨트르를 위한 세 가지의 특별한 향수 작품

오뜨 퍼퓸머리와 하이 워치메이킹의 만남: 진귀한 원료를 농밀하게 담아낸 심플한 포물러로 완성되어, 여운이 짙은 잔향을 선사하는 향수

세 가지 시그니처 향수: 우디 스파이시 노트로 탐험의 정신을 포착한 어드벤처 스피릿(The Adventure Spirit), 플로럴 레더 어코드로 우아함을 표현한 드림 셰이퍼(The Dream Shaper), 그리고 소리의 진동을 우디 로즈 시그니처 노트로 재해석한 사운드 메이커(The Sound Maker)

2026년, 예거 르쿨트르는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을 통해 조향사 니콜라 본빌과 함께 메종을 위한 세 가지 새로운 시그니처 향수를 선보입니다. 니콜라 본빌은 2024년 타임리스 스토리즈(The Timeless Stories), 셀레스티얼 오디세이(The Celestial Odyssey), 프리시전 파이어니어(The Precision Pioneer)에 이은 새로운 작품으로 어드벤처 스피릿(The Adventure Spirit), 드림 셰이퍼(The Dream Shaper), 사운드 메이커(The Sound Maker)를 공개하며 예거 르쿨트르만의 향과 감성을 이어갑니다. 메종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는 이번 향수 컬렉션은 **최고급** 워치메이킹과 **최고급** 조향 분야에서 공유하는 창의성, 전문성, 정밀성의 가치를 담아냅니다. 니콜라 본빌은 예술적 감각과 전문 기술을 결합한 창조적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첫 번째 컬렉션을 더욱 가벼운 노트로 재해석했습니다. 앞서 출시한 세 가지 테마 향수가 메종의 영감을 깊고 풍부한 향으로 표현했다면, 이번 컬렉션은 메종의 DNA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산뜻하고 화사한 향을 강조합니다.



세 가지의 새로운 시그니처 향수

니콜라 본빌이 조향한 세 가지의 새로운 시그니처 향수는 간결한 포뮬러, 진귀한 원료, 높은 농도라는 오프 퍼퓸머리의 핵심 원칙을 담아냈습니다. 모든 작품에는 정밀성을 향한 열정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워치메이킹을 향한 메종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향수의 정교한 구성은 마치 발레드주에서 개발된 메커니즘을 연상시킵니다. 탑 노트와 하트 노트, 베이스 노트는 투명하고 균형감 있게 이어지며, 각각의 원료가 지닌 특성과 매력을 드러내면서도 조화로움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우아하게 오래 머무는 잔향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어드벤처 스피릿은 우디 스파이시 향수입니다. 메모박스 폴라리스부터 마스터 컴프레서 및 익스트림 랩 컬렉션까지, 군사적 요구와 심해 탐사, 대담한 기술 혁신에서 탄생한 예거 르쿨트르의 탐험 시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향수는 진저 추출물의 상쾌함으로 시작해, 샌달우드 에센스의 따뜻하고 풍성한 하트 노트로 이어지며, 모스를 중심으로 드라이한 미네랄 노트가 깊이감을 더합니다. 도시에 살아가면서도 끝없는 지평과 미지의 풍경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적인 모험가를 떠올리게 하는 향입니다.

드림 셰이퍼는 플로럴 레더 향수입니다. 듀오플랜과 칼리버 101부터 랑데부 컬렉션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주얼리 공예와 소형화 기술, 우아한 품격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성성과 기술적 독창성을 결합한 메종의 여성용 타임피스를 기념합니다. 베르가못 에센스의 산뜻한 향으로 시작하여 미모사 앵솔루트가 선사하는 부드럽고 파우더리한 플로럴 하트 노트로 이어집니다. 점차 스모키한 스웨이드 노트가 펼쳐지며, 블랙 티 추출물과 어우러져 향에 깊이와 관능미를 더합니다. 구조와 부드러움, 강인함과 우아함이 균형을 이루는 구성은 당당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현대 여성을 연상시킵니다.

사운드 메이커는 강렬한 우디 로즈 향수입니다. 피에르 르쿨트르가 세운 유서 깊은 르 상티에 예배당부터 매뉴팩처의 차임 컴플리케이션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기계 예술과 음향 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소리의 진동을 향기로 표현했습니다. 향수는 미네랄과 스모키 인센스로 시작되어, 고대의 석조 건축과 신성한 공간의 고요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지는 하트 노트에서는 로즈 메탈 어코드가



강렬하게 피어오르고, 따뜻함과 화사함의 조화를 펼쳐냅니다. 긴 여운을 남기는 잔향을 선사하는
드라이 우드와 머스크 노트는 시간을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니콜라 본빌이 조향한 세 가지 향수는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시그니처 향으로, 고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향후 메종의 다양한 활동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니콜라 본빌 소개

니콜라 본빌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며, 12세가 되던 해 세계적인 향수의 중심지인 그라스를 여행하던
중 향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후 향수 제작을 독학하며 경험을 쌓았고, 학업을 마친 후에는 자크 모렐과
프란시스 커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그는 작업에 사용하는 희귀 천연 원료의
원산지를 찾아 세계 전역을 누빈다. 또한 자연에서 큰 영감을 얻는 열정적인 정원사로서, 파리의 개인 정원에서
다양한 식물과 꽃을 직접 가꾸고 있습니다. 예술 애호가이기도 한 그는 워홀, 해링, 존원, 뱅크시와 같은 팝 아트
및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일상적인 사물을 활용하고 도시를 재해석하는 방식에서 창작의 영감을 받습니다.
예술적 감성뿐 아니라 경쟁이 주는 에너지를 즐기는 그는 고향에서 열리는 유명한 르망 24시간 레이스를
정기적으로 관람하며, 조향과 모터스포츠 모두 성공의 열쇠는 긴밀한 팀워크에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2024년, 니콜라 본빌은 프랑스 향수 재단(Fragrance Foundation France)의 '니치 향수' 부문에서 수상한 데 이어,
같은 해 코스메틱마그 에디토리얼 어워드(CosmétiqueMag Editorial Awards)에서 '올해의 젊은 조향사'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2026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향수 재단 어워드(Fragrance Foundation Awards)에서 브루노
요바노비치, 마리 살라마뉴와 함께 '최고의 남성 프레스티지 향수' 부문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MADE OF MAKERS™ 소개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워치메이킹 이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장인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읍니다. 워치메이킹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교류를 확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예거 르쿨트르를 정의하는
핵심 원칙인 창의성, 전문성, 정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랑 메종의 가치를 공유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구하는 세계적인 크리에이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되는 새로운 작품들은 예거 르쿨트르가 전 세계에서 개최하는 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선정된 주제를



확대함으로써,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예술, 공예, 디자인에 대한 더욱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에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곳의 아틀리에, 108가지의 공예, 그리고 69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